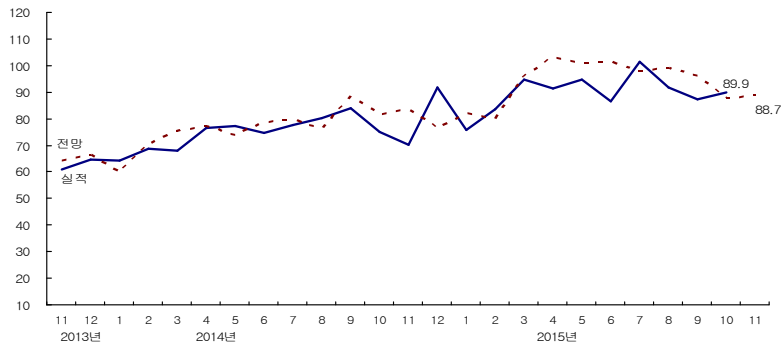


2015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0월 CBSI 2.7p 상승한 89.9 기록
3개월 만에 소폭 상승

- 2015년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2.7p 상승한 89.9를 기록함.
 - CBSI는 올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7월에 13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1.3을 기록했는데, 8월 이후에는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음.
 - 그러나, 10월 들어 CBSI가 3개월 만에 다시 소폭 상승함.
 - 상승 원인은 지난 2개월 동안 연속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전월인 9월에 추석이 포함된 명절 효과와 계절적 요인, 추경 예산 집행 등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CBSI 상승 폭이 2.7p에 그쳤고,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90선에 미치지 못해 지난 7월까지 빠르게 회복된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8월 이후로는 추가적인 개선에 지속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상반기 CBSI 상승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주택경기 회복세가 최근 들어 신규 공급과잉에 의한 둔화 가능성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SOC 예산을 늘렸지만 당장 건설기업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건설경기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기업 지수가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중견기업 지수는 상승, 중소기업 지수는 하락하여 기업 규모별로 상이한 체감경기 수준을 나타냈음.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00.0을 기록하여 하락세가 멈추었으며,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음. 하지만, 전망치가 2014년 4월의 83.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84.6을 나타내 향후 체감경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비 8.9p 상승한 102.8을 기록함. 중견기업 지수가 기준선을 넘은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이며, 특히 대형기업 지수를 상회한 것은 2012년 4월 이후 처음으로서 전체 CBSI 상승을 주도하였음.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1.3p 하락한 63.3을 기록했음. 7월(80.9) 이후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하여 최근 건설경기 개선 둔화 조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규모별 · 지역별 건설경기 BSI 추이 >

구 분	2014년 12월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실적	전월 전망치	전망
총 합	91.7	75.8	83.5	94.9	91.4	94.6	86.7	101.3	91.6	87.2	89.9	87.7	88.7
규모별	대형	100.0	100.0	100.0	115.4	108.3	115.4	100.0	125.0	107.7	100.0	91.7	84.6
	중견	97.0	71.9	90.6	103.1	94.6	84.2	91.9	94.7	91.9	93.9	102.8	87.9
	중소	76.0	51.9	56.0	61.5	67.9	82.0	65.3	80.9	72.5	64.6	63.3	77.6
지역별	서울	94.4	86.2	98.0	107.9	102.5	103.0	97.4	115.2	100.5	97.2	100.6	90.5
	지방	87.9	60.7	62.2	75.1	75.6	82.6	71.0	80.4	78.4	74.3	83.6	88.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5년 11월 CBSI 전망치는 10월 실적치 대비 1.2p 낮은 88.7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낮은 것은 건설기업들이 11월에는 건설경기가 10월보다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연말로 접어들면서 발주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실적치보다 낮고, 6개월 연속으로 90선을 상회하던 지수(3월~9월 전망치)도 2개월 연속으로 80선대에 머무름.

- 따라서 다수의 건설기업들이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대형기업의 전망치는 실적치 대비 15.4p 낮아 가장 비관적인 반면 중견기업은 실적치와 동일 수준, 중소기업은 오히려 14.3p가 높게 나타나 기업 규모별로 전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 10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기업이 전월보다 3.4p 상승한 100.6을, 지방기업도 1.9p 상승한 74.3를 각각 기록함.
- 서울기업 지수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115.2, 100.5를 기록, 2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넘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9월에 97.2로 다소 주춤하였음. 10월에 전월보다 3.4p 상승한 100.6을 기록해 2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100)을 넘어섬.
- 한편, 지방기업 지수의 경우 전월보다 1.9p 상승한 74.3을 기록해 지수가 3개월 만에 상승함. 비록 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하였어도 상승폭이 2p 미만에 70선에 불과해 여전히 지방기업의 상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015년 10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 100.6 기록, 전월비 9.3p 상승

- 2015년 10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9.3p 상승한 100.6을 기록함.
- 신규공사 수주는 지난 8월 기준선(100.0)를 넘어선 103.9를 기록, 여름철 비수기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가 양호했음. 그러나, 9월 들어서는 전월비 12.6p 하락한 91.3을 기록함.
- 10월에 들어와 다시 지수가 9.3p 상승한 100.6을 기록해 2개월만에 지수가 기준선(100)을 넘어섬.
- 지수가 기준선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지난 9월보다는 신규 수주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토목과 비주택 건축공사 지수가 9월 지수보다 하락해 80선에 머무른 가운데, 주택만이 기준선(100.0)을 넘어선 112.0

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결과적으로 10월 지수 상승은 주택 수주물량 증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주택 공종의 신규 공사수주 지난 9월 95.3으로, 지난 7월과 8월 115.2, 100.7로 2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어선 이후에 3개월 만에 90선으로 하락함. 10월에 들어와 전월보다 16.7p 상승한 112.0으로 2개월만에 다시 기준선을 넘어섬.
- 비주택 건축공사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보다 3.1p 하락한 86.1을 기록, 전월보다 신규 수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토목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0.4p 하락한 82.4를 기록함.
- 기업 규모별로는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과, 중견은 전월 보다 지수가 상승, 지수가 기준선(100)을 넘어서 양호한 모습을 보임. 다만, 중소기업의 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기업의 신규 공사수주는 전월 대비 6.4p 상승한 123.1로 기준선(100.0)을 넘어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 또한, 전월 보다 20.8p 상승한 105.6을 기록해 전월보다 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0.2p 하락한 68.6을 기록, 지수가 2개월 연속 60선에 머물.

< 신규 공사수주 BSI >

구 분		총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100.6	123.1	105.6	68.6	114.3	80.6
	전망	98.1	100.0	113.9	78.0	101.1	93.7
토목	실적	82.4	100.0	83.3	60.8	90.9	70.2
	전망	85.6	92.3	88.9	74.0	86.9	83.7
주택	실적	112.0	146.2	114.3	69.4	129.9	85.8
	전망	102.7	100.0	125.7	79.6	109.0	93.4
비주택	실적	86.1	100.0	88.9	66.7	94.1	74.5
	전망	93.6	100.0	97.2	82.0	95.2	91.4

주 : 실적은 2015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1월 예측지수임.

- 한편, 2015년 11월 신규 공사수주 전망지수는 10월보다 2.5하락한 98.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기준선(100.0)보다 하락해 10월 보다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함.

- 공중별로는 주택의 전망지수가 102.7을 기록해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양호할 전망이다.
- 한편 토목과 비주택의 경우 각각 85.6, 93.6으로 각각 전망함.

건설공사 기성 지수 100.6 기록해 기준선 근접,
수주잔고 지수는 101.4 기록

- 10월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전월보다 4.5p 하락한 100.6을 기록함. 지수가 기준선(100)에 근접해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과, 중견기업의 기성 물량이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건설공사 기성지수는 지난 8월 107.9를 기록함. 이후 9월에 105.1, 10월에 100.6으로 점차 하락함. 다만, 여전히 기준선(100)보다는 높아 전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대형기업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전월보다 9.6p 하락한 115.4로 여전히 기준선 이상을 기록하였음.
 - 중견기업 건설공사 기성 지수도 전월보다 0.8p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선(100)을 넘어선 108.3으로 전월보다 공사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중소기업 지수의 경우 전월보다 2.6p 하락한 74.5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한편, 다음 달 전체 건설공사 기성 지수 전망치는 100.2로 기준선(100)과 근접해 10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 10월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보다 12.0p 상승한 101.4를 기록함.
 - 이는 10월 수주가 전월보다 증가해 수주 잔고 상황이 지난 9월보다 양호해 진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대형기업의 수주잔고 지수가 138.5로 가장 양호했으며, 중견기업은 기준선(100)에 근접한 97.2를 기록함. 다만, 중소기업 지수는 62.7로 부진하였음.
 - 한편, 11월 전체 수주잔고 지수 전망치는 100.6으로 10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건설공사 기성 및 수주잔고 BSI >

구 분		총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건설공사 기성	실적	100.6	115.4	108.3	74.5	111.4	85.0
	전망	100.2	115.4	102.8	79.6	108.1	88.7
수주 잔고	실적	101.4	138.5	97.2	62.7	117.7	77.7
	전망	100.6	123.1	97.2	78.0	111.1	85.2

주 : 실적은 2015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1월 예측지수임.

- 한편, 10월 자금 지수를 살펴보면 공사대금 지수가 100.4로 기준선을 넘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자금 조달 지수가 86.3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공사대금 지수는 지난 9월에는 전월보다 9.8p나 하락한 92.0을 기록해 공사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월에는 기준선을 넘어선 100.4를 기록, 전월보다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금조달 지수는 86.3으로 여전히 80선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일부 대형기업의 해외 사업 손실 발표로 인하여, 지난 9월에 비해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자금 BSI >

구 분			총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금	실적	100.4	107.7	113.9	76.5	110.0	86.4
		전망	97.0	107.7	102.8	78.0	103.6	87.5
	자금조달	실적	86.3	92.3	94.4	70.0	92.8	76.9
		전망	87.0	92.3	86.1	81.6	86.3	87.9

주 : 실적은 2015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1월 예측지수임.

끝